

## 인식모형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무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관교육과 실물교육을 잘하는것은 학생들에게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교수내용을 쉽게 리해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343 페이지)

현시기 학생들에게 외국어단어의 의미를 원리적으로 정확히 인식시키는데서 인식모형을 리용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인식모형은 인식언어학에서 원형리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모형으로서 일정한 단어들의 집단에 공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원형효과를 충분히 설명할수 있게 한다.

류종관계에 있는 여러가지 단어들의 의미를 원리적으로 파악하는데서 그러한 단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면 외국어단어들의 본질적의미와 그 활용방법을 보다 원만히 습득할수 있다.

bird(새)의 경우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penguin(펭귄)보다는 owl(올빼미)를, owl보다는 sparrow(참새)를 《새》의 더 좋은 본보기로 여긴다. 이때 참새가 《새》의 원형이 되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더우기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징외에도 문화적인 관념이 작용한다면 실제로 인디아에서는 peacock(공작새)가 《새》의 원형으로 간주되게 된다. 《새》의 규정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가가 모호하며 특성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도 쉽지 않으므로 원형을 전체적인 개념 즉 속성의 덩어리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제기되고있다. 다시말하여 《새》의 경우 《깃털》, 《날개》, 《부리》, 《둥지만들기》, 《나는 능력》 등이 원형적인 《새》의 징표를 구성한다고 보는것이다. 그러면 이 덩어리는 우리의 머리속에서 어떻게 파악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로, 1970년대에 유행된 점검표리론(checklist theory)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질서정연하기를 좋아하므로 자연범주의 혼란은 인식적부조화 즉 머리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 경우 사람들은 잠재의식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본보기를 선택하고 그 본보기가 어떤것의 적절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는것이다. 따라서 원형은 자연적으로 변이되는 현상과 의미에 대한 점검표식방법을 조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

둘째로, 1980년대이후에 유행된 연결주의리론(connectionist theory)이다.

연결주의리론에 의하면 원형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있는 수많은 속성(실례: 새 — 《깃털》, 《날개》, 《부리》, 《둥지만들기》, 《나는 능력》 등)들은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것이다. 이 속성의 덩어리는 《참새》, 《까치》, 《앵무새》 혹은 《비둘기》를 볼 때마다 머리속에서 즉시 되살아나며 사람들은 이러한 새들을 《따오기》, 《큰부리새》보다 더 자주 보는 경우 관련된 특성들사이의 연결관계가 더 강해지고 이 연결관계가 우리 머리속에서 원형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런데 점검표리론과 련결주의리론은 제각기 소수의 원형에만 적용될수 있다는 제한성을 가진다.

셋째로, 1990년이후에 원형의 내적리론으로 주목을 끌고있는 인식모형리론(cognitive model theory)이다.

이 견해는 점검표리론과 련결주의리론의 대안으로서 사람들은 잠재의식적으로 자기의 생활과 그속에 있는 모든것을 다루기 위하여 스스로 정신적모형을 만들게 된다는것이다. 이 모형은 세심한 관찰, 문화적관습, 기억의 단편, 일정한 정도의 상상력이 뒤엀킨 혼합체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말하여 원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정신적모형(mental model)으로서 그 모형은 공유되고 구조화된 지식의 내면화된 인식모형(internalized cognitive model)을 나타내며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구조물로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현실에 잇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인식모형은 그 중요성으로 하여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어왔다.

연구자들마다 인식모형에 대하여 언급한 용어들이 서로 각이하다. 실례를 든다면 《mental models(Johnson-Laird)》, 《frames(Fillmore, Barsalou)》, 《scripts(Schank & Abelson)》, 《ICMs(Lakoff)》, 《cognitive domains(Langacker)》, 《schemas(Taylor)》, 《image schemas(Johnson)》, 《cultural models(Radden)》, 《mental lexicon(Aitchison)》 등이 있다.

인식모형리론의 바탕이 되는것은 인식언어학 및 세계에 대한 지식이다.

인식언어학에서는 언어적지식과 비언어적지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취한다.

레이코프는 감각운동과 인식적발달, 지각, 기억, 주의력, 사회적호상작용, 인격 및 경험의 여러 다른 측면과 독립적으로 언어능력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테일러는 언어와 일반적인 인식능력사이의 긴밀성을 변증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언어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및 객관과의 호상작용이라는 문맥속에서 인식하고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언어적능력과 비언어적능력, 언어적사실과 비언어적사실, 말하는 사람의 언어지식과 비언어지식, 언어능력과 활용의 명확한 구분은 결국 비현실적이며 옳지 않다고 본다.

인식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좁게 정의된 언어능력밖에서 언어구조에 대한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행위가 순수하게 언어능력에 의해서 설명될 필요가 있느냐 혹은 인식능력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인식언어학자들은 순수한 언어적능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레이코프의 《령가설(null hypothesis)》을 기준으로 삼는다.

인식언어학에서는 또한 의미를 언어적지식과 세계의 지식속에 들어있는 인식구조라고 보고 둘사이의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인식모형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되고 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것으로부터 오는 혼란은 동일한 학자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인식모형리론의 대표적인 2가지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테일러는 《틀(frame)》을 하나의 언어형태와 련관된 여러 《령역(domain)》을 련결하는 《지식망(network of knowledge)》으로 보았다. 실례로 《어머니》틀은 《유전》, 《출생》, 《양

육》, 《가계》, 《혼인》의 다섯가지 령역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틀》의 리상화는 뿌리깊은 문화적확신이나 관례에 기초하고있다고 하였다.

필모어의 견해에 의하면 개념은 서로 관련된 체계를 만들며 한 개념의 리해에는 그것을 포함한 체계전체구조의 리해가 전제로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체계를 《틀》이라고 하였다. 《틀》은 단어의 의미를 구조화하며 단어는 《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틀》은 민스키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연구집단이 처음으로 내놓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부딪칠 때 백지상태에서 출발하여 관찰하고 분석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정황에서 얻은 리해의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황을 리해하는것을 말한다. 즉 우리는 머리속에 저장된 기존의 《틀》을 통하여 새로운 정황에서 의미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인식체계는 고립된 개념으로 조직되는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구조화된 체계다시말하여 《틀》과 사람의 믿음, 행동, 경험, 상상력의 긴밀한 집합들로 구성된 지식의 전체 덩어리로 이루어져있다. 이 리론에 의하면 단어의 의미는 경험, 믿음, 관례의 구조화된 배경 등의 측면에서 리해된다.

《틀》은 일종의 해석장치인데 우리는 그 장치에 의거하여 주어진 문맥안에서 한 단어의 측면을 리해한다. 《틀》은 언어에 의해서 창조될수 있고 혹은 그 언어에 반영되어있을 수도 있다. 언어자체에 의해서 창조된 《틀》의 본모기를 아래의 실례 ㄱ)의 합성세척제꾸레미의 등급표시를 통하여 설명할수 있다.

례: ㄱ) 《크기》에 관한 단어: tiny - small - medium - large - gigantic

ㄴ) 《합성세척제》틀: large size - economy size - family size - jumbo size

실례 ㄴ)에서 《합성세척제》틀은 소비자가 단어 large의 의미를 옳게 해석하도록 한다. 다시말하여 실례 ㄱ)의 《크기》에 관한 단어인 large와 달리 실례 ㄴ)에서 소비자는 economy size, family size, jumbo size를 통해서 large size의 large가 가장 작은 꾸레미를 의미한다고 리해하게 된다.

또한 련관된 《틀》이 다르면 동일한 대상이라고 해도 별개의 단어로서 표시된다. 실례로 영어의 land 및 sea의 《틀》은 ground 및 air의 《틀》과 대조를 이룬다. 실제로 land와 ground는 동일한 땅표면이지만 이 대조적인 《틀》에 의해 land는 바다에서 본 땅표면이 되고 ground는 공중에서 본 땅표면이 된다. 따라서 다음실례에서 land 및 ground의 해석은 서로 다른 틀을 련상시킨다.

례: a. A bird that spends its life on the land/ground.

b. He managed to spend two hours on the {land/ground} today.

실례 a의 경우 land에서 사는 새는 날수 있지만 헤엄치지는 못하며 ground에서 사는 새는 헤엄칠수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실례 b의 경우 land에서 두시간을 보냈다는것은 항해중이었으며 ground에서 두시간을 보냈다는것은 비행중이었다는것을 나타낸다.

랑가커에 의해서 제안된 인식문법의 통합구조안에서 의미구조는 《령역(domains)》에 의해서 서술된다. 이 경우 《령역》은 모든 언어단위가 서술되는 인식표상을 말한다.

랑가커는 《령역》을 기본령역과 비기본령역으로 구분하였다.

기본령역은 다른 령역을 전제로 할뿐아니라 통합하며 다른 령역의 출현과 그것을

특징짓기 위한 기초로 된다.

기본영역은 정신적경험을 위한 타고난 능력이며 개념적잠재력을 인식적으로 더 줄일 수 없는 표상의 공간 혹은 장소이다. 기본영역에는 시간경험과 2, 3차원적공간에서 형상을 개념화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색채공간, 음의 고저, 맛과 냄새 등의 감각영역, 정서 및 운동감각능력이 포함된다.

비기본영역은 기본영역의 측면에서 특징지어지는 영역이다.

실례로 《붉다》(색채공간), 《덥다》(온도), 《line》(2차원적공간), 《before》(시간) 등의 개념조직은 팔호속에 있는 단위를 전체로 한다.

이러한 영역의 몇가지 본보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손마디》나 《손톱》은 《손가락》의 영역의 측면에서 서술되며 《손가락》은 《손》의 영역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례①: 손마디(knuckle)/손톱(fingernail) — 손가락(finger) — 손(hand) — 팔(arm) — 신체(body)

②: a. A finger has three knuckles and a fingernail.

b. An arm has five fingernails and fourteen knuckles.

c. A body has twenty-eight knuckles.

우의 실례 ①, ②에서 《손톱》을 정의하는데는 《손가락》을 영역으로 선택하는것이 적절하다. 《손톱》이 팔과 신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손톱》을 정의하는데 이 영역들을 선택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fingernail이라는 합성어는 가능하지만 handnail, armnail, bodynail이라는 합성어가 성립되지 않는데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금요일》은 《주》(week)영역의 일부이다. 주어진 개념의 층위안에서 인식영역이 더 추상화될수록 문화적으로 한정된 의미의 영역을 취하게 된다. 《금요일》은 대상세계에서 실재가 없다. 본질적으로 추상영역 《금요일》에 관한 말하는 사람의 이해는 문화적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말하여 금요일은 문화적으로 한정된 《달력영역》에서는 목요일다음에 오는 날이고 《그리스도교영역》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날이며 서양의 전통적인 《사법부영역》에서는 교수형집행의 날이다.

이 경우 인식영역은 명확히 활성화될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인식영역에 대한 공유지식이 《왜 오늘 생선을 먹습니까?》라는 아이의 질문에 대하여 금요일에 육식을 삼가하는 카톨릭교집안의 어머니가 《금요일이기때문이다.》라고 대답하도록 한다. 그리고 《왜 오늘 숙제를 하지 않니?》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금요일이기때문입니다.》라는 아이의 대답은 토요일수업이 없는 문화적배경속의 《주영역》에 기초하고있다.

우리는 인식모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체적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사물현상 특히는 단어의 어휘적의미를 보다 원만히 인식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인식모형, 인식언어학